

2021년 1월 8일

현민 여러분께 지사의 부탁 말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특별경계 기간의 설정)

항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방지에 협력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월 7일에 도쿄도,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1도 3현을 대상으로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되었습니다.

전국 확진자 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감염 확대가 사람의 왕래에 의해서 지방으로 과급되고 있으며, 현 내에서도 연말연시 때 사람의 이동에 따라 지금까지 감염이 집중되어 있던 마쓰야마시에서 현 내 전역으로 확산할 것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작년 12월부터 강하게 주의를 환기해 온 연말연시의 회식을 통한 감염확대가 현저해지고 있는 등 연령별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많은 감염이 확인되었고, 이것이 가정 내와 직장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감염확대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 2021년 1월 8일(금)부터 1월 26일(화)까지를 「특별경계 기간」으로 하여, 감염 회피 행동을 요청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한층 더 긴장감을 가져 주시어, 감염 회피 행동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식에 관해서는 음식점 등의 회식은 물론 친한 지인들과 자택 등에서의 회식도 아무쪼록 주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한 요청 내용 (감염 회피 행동)》

○감염 확대지역 (도쿄도,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1도 3현) 으로 불요불급의 왕래와 출장의 자숙

※부득이 한 왕래와 출장 (수험, 의료, 관혼상례 등) 은 감염 회피행동을 철저히

※이 경우, 현에 돌아온 후 2주간은 건강 관리에 유의하고 모임 등의 참석을 자숙하는 등 감염 회피 행동을 철저히

○회식 (이른바 「술자리」) 에 관해서 다음 사항에 주의

●대인원 (5인 이상) , 장시간의 회식은 하지 않는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사람은 회식에 참가하지 않는다, 참가 시키지 않는다

●감염 확대지역에서의 체류 등 2주간 이내에 감염 위험이 높은 행동을 한 사람은 회식을 삼간다.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5 가지 상황」에 충분히 주의

- ① 음주를 동반하는 모임 등
- ② 집단 또는 장시간에 걸친 음주
- ③ 마스크 없이 대화
- ④ 좁은 공간에서의 공동생활
- ⑤ 자리 이동

《앞으로 특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라는 점》

○증상이 있는 사람은 통근, 통학 등 외출을 삼가고, 주치의 등에 연락하여 진찰을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 발열 증상이 중심이지만, 발열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 감기 증상 전반에 주의해 주십시오.

○현 내에서도 감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기 보다는 「충분한 휴양과 수면을 취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면역기능을 높여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